

■수능 D-100일 마무리 전략 어떻게

지망대학 3~5개 선정 후 영역별 맞춤식 학습 필요

200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11월15일)이 7일로 100일을 앞두고 왔다.

입시전문가들은 5일 '수능 D-100일'에 맞춰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재점검해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지망대학의 전형 방법을 정확히 파악,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마무리 전략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능이 9등급제로 시행되면서 모든 영역에 걸쳐 고르게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난이도 조절을 위해 출제되는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맞춤식 마무리전략이 성패 가른다

수능일까지 남은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입시 성패가 좌우된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실력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지망대학을 3~5개 선정할 때 해당 대학에서 반영하는 영역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많은 대학이 '3+1'(인·수·외+탐구) 체제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탐구영역은 2~3과목만을 요구하는 대학이 많다. 4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지망대학이 요구하는 과목수에 맞춰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각 영역 등급 향상을 꾀하라

올해처럼 수능 결과가 등급으로만 제공되는 점수 체계에서는 등급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각 영역에서 고르게 등급을 잘 받아야 한다. 또 지망대학의 수능 영역별 가중치와 각 영역의 등급간 배점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등급 체계에서는 같은 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다를 경우 실제 수능에서 얼마든지 등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출문제 풀이가 청첩이다

기출문제를 모의평가 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과 난이도의 변화를 파악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일정

모집시기구분	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비고
수시 모집	2학기 (원시접수 및 전형) 2007.9.7~12.11(96일)	2007.12.16까지	2007.12.17~18	학생부 기준일 -2007.8.31
원시 접수	가.나.가나다:2007.12.20~25(6일간) 다.가.나.다.가나다:2007.12.21~26(6일간)			
정시 모집	가군 (전형기간) 2007.12.27~2008.1.10(15일) 2008.1.11~21(11일) 2008.1.22~2.1(10일)	최초:2008.2.1까지 미등록 총원합계: 2008.2.13까지	정시등록기간 2008.2.4~5 미등록 총원 등 2008.2.13까지 2008.2.14까지	학생부 기준일 -2007.12.7
추기모집	2008.2.16~29(14일)의 기간 중에 접수	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시행		

수준별 수능준비 전략

평균등급 1~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영역 1등급을 목표로 한다. 평소 1등급을 받지 못했던 영역이나 과목에서 특별히 취약했던 단원을 파악,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인 영역별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자 수리영역은 반드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 부족했던 부분을 마스터 한다.
평균등급 3~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등급 2등급을 목표로 공부 시간을 늘려보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탐구영역은 시간투자에 비례해서 등급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므로 전략영역으로 삼되, 언어·외국어영역은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며, 수리영역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취약 단원위주로 집중 학습하도록 한다.
평균등급 5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심히 하는 만큼 올리길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수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원이나 온라인강의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단, 전방위적이거나 개론적인 강의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므로, 본인이 특히 취약한 영역 및 단원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면 그만큼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수능 등급제에 맞춰 처음 실시된 지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언어영역과 수리 '나'형 및 일부 탐구영역 과목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음달 시행하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역시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문제풀이로 실전감각을 익혀라

남은 100일 동안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풀어 실력 향상을 꾀하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풀이는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를 통해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되풀이해 시간 안배 능력을 키워야 한다. 평소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다음에도 틀리기 쉬우므로 시험을 친 뒤에는 잘 틀리는 문제를 별도의 오답노트에 기록해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시내버스에 현금인식함 설치

광주시, 수입금 투명성 확보

광주시가 버스 수입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5억여원을 들여 933대 전 시내버스에 설치기로 한 현금인식기 보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보급에는 지폐 인식기가 장착돼 있으며, 돈을 세는 계수작업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또 위조나 불량지폐, 위조 승차권 등의 식별도 가능하다. (광주시 제공)



기후변화, 철새 이동시기 바꿨다

기후변화가 철새들의 이동 시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2007년 흉도 지역을 거쳐 상하이·푸저우·홍콩 등 중국 동남부지역 3곳으로 이동하는 봄철새 84종의 이동 시기를 조사한 결과, 총 15종의 이동 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흉도와 중국 동남부지역 3곳의 2007년 3월 평균 최저기온은 2006년 같은 기간에 비해 0.5~2.0도가량 상승해 기후변화가 철새의 이동시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철새 중별로 살펴보면 증대백로(6일)와 제비(16일), 해오라기(32일), 물총새(36일) 등 13종은 이동시기가 6~36일(평균 18.9일) 빨라졌다.

반면 검은딱새(6일)와 뽕새(16일) 등 2종은 이동시기가 평균 11.0일 늦어졌다.

채희영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의 지표종으로 조류를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물총새> <검은딱새>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

5일 광주·전남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일부 과수 농가가 낙과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화순군 화순읍 도동리 한 복숭아 농가의 농민이 폭우로 인해 떨어진 복숭아를 줍고 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8월 6일 (음 6월 24일) <전국날씨>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으며 비가 온 후 오후 늦게 개겠다

구분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주요도시	흐리고 비 후 맑음	23~29℃
부산	흐리고 비 후 맑음	23~28℃
대구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대전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충청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경상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강원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제주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울릉도	흐리고 비 후 맑음	24~30℃
독도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제주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제주	흐리고 비 후 맑음	24~30℃
제주	흐리고 비 후 맑음	24~30℃
제주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제주	흐리고 비 후 맑음	23~30℃
제주	흐리고 비 후 맑음	21~27℃

서울: 맑음, 부산: 맑음, 대구: 맑음, 대전: 맑음, 충청: 맑음, 경상: 맑음, 강원: 맑음, 제주: 맑음

▲해돋이 05:45 ▲해질 19:32 ▲달돋이 23:41 ▲달질 13:33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4/32	25/32	25/33	26/34	25/31	24/30

'인권수사' 민간전문가 3명이 평가

'검찰 인권평가위' 발족

법무부는 5일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인권평가위원회'(위평위)를 6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사 출신인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과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인 조준석 변호사, 법무부 감찰위원을 지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6일부터 1개월간 대검찰청을 포함해 62개 일선 검찰청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존치 이행상황을 감독

해 작성한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작업을 한다.

평가항목은 ▲인권보호 실태 및 조치 위반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위반사례의 적정한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는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철저히 실시했는지 등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정밀분석해 인권보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인권 수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연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법인 돈 개인용으로 쓰고

사용처 못 밝히면 횡령죄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수입을 개인 용도에 쓴 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의료법인 자금 17억여원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모 의뢰재단 정보

(53) 이사장과 정씨의 아내이자 병원 행정원장 김모(5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뢰재단 수입금 17억8천610만여원을 토지·아파트·콘도회원권 구입비, 정기예금, 생명보험금, 자녀 과외비 등으로 썼다가 횡령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용한 법인 재산보다 재단에 투입한 개인 재산이 더 많으므로 재단 수입을 횡령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KT 파워벨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CALL" 서비스 업그레이드

부담없는 후속서비스, CS기능역차-화제를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KT파워벨 최첨단 콜시스템 어플리케이션

KT파워벨 광주지점 062-526-0130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30%~최고 50%

로템갤러리